

현행 KS 완성형 한글 코드의 문제점

김 충 회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Issues in KS Complete Type Hangul Code

Kim, Choong-ho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국내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컴퓨터의 한글 처리 문제는 '과연 컴퓨터에서 한글 처리가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한글 처리 방식이 다양각색으로 N 바이트니, 3 바이트, 7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8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8 비트 2 바이트 조합형이니 하여 난립하여 왔다. 이로 말미암아 소프트웨어의 호환은 물론 한글 문서의 호환마저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겪는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정보 교환을 가로 막는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글 코드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1987년 3월 '정보 교환용 부호에 관한 한글 공업 규격'(KS C-5601-1987)을 새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글의 가장 뛰어난 조합에 의한 확장성을 무시한 '2 바이트 완성형'을 채택 2,350자의 한글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 나라 국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결점발이 한글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한글을 이제 교육용 컴퓨터에서까지 채택함에 이르러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I. 서 언

컴퓨터의 한글이 1987년 KS C-5601에 의하여 종전의 조합형에서 2 바이트 완성형 코드가 표준 규격으로 정해진 이후, 행정 전산망용으로 채택, 정부 자원의 컴퓨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KS 완성형 한글 코드를 표준으로 채택하는 하드웨어 생산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이 8비트에서 16비트로 바뀌면서 역시 KS 완성형 한글카드 내장을 기본 규격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KS 완성형 한글 코드 발표 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이의 보완이나 수정 없이 교육용에서까지 완성형 한글을 채택하게 됨에 이르러 우리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그동안 나타난 완성형 한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고 그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KS 한글 코드가 나오기까지의 배경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이래로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어 왔다.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컴퓨터란 수치 연산 등 조사 통계용으로나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문자 표현은 영문으로 사용하거나 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것이 고작으로 그것만으로도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경이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때가 오래지 않다.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컴퓨터에서 한글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할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 한글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8 비트 PC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8 비트 PC에서 사용하던 '한글'이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한다고 했는가' 할 정도로 그저 컴퓨터 화면에 '한글'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것으로 생각했고, 끝내 8 비트 PC에서는 한 번도 '한글다운 한글'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16 비트 PC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8 비트 PC의 수명이 그만큼 단명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8 비트 PC의 용량의 제약으로 '한글 처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1984년경부터 16 비트 IBM 호환 PC가 보급되면서 '개인용' 및 '업무용'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바로 '한글'의 사용이 8 비트 PC에 비하여 월등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IV. 결론

지금까지 KSC-5601-1987에 의한 완성형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 보았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한글의 특성을 무시한 '완성형 한글'을 KS 규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KS 규격이 행정 전산망용으로 확정이 되고, 각 업체에서 자사의 컴퓨터에 표준 규격으로 채택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공공의 공중 정보 통신망 등에서도 완성형을 채택하면서 점차로 확산 추세에 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에서도 KS C-5601에 의한 한글 카드를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하니, 제 나라 글도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컴퓨터 교육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실로 답답하기만 하다.

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에서 KS C-5601 완성형 코드와 함께 잠정적으로 기존의 조합형을 함께 지원하도록 규격을 보완하도록 한다.

2. 현재의 완성형 코드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유경희 1989)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지적된 완성형 한글의 문제점은 즉시 보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방안을 포함하여 현대국어의 표현에 필요한 글자는 모두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영역은 한자를 줄일 수도 있다. 어차피 한자는 10,000자를 제정해 놓아도 부족한 한자가 있게 마련이다. 특수 문자에 배당된 986자 중에서도 검토해 보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KS 완성형 규격과는 별도로 학술·출판·교육용의 조합형의 KS 규격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한다. KS 완성형 한글로는 우리 국어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우리 國語란 現代 標準語뿐 아니라 方言과 古語도 우리 國語의 귀중한 文化 遺産이다. 이 귀중한 문화 유산을 기록할 방법이 없는 컴퓨터란 최첨단 기기가 아니라 가장 낙후된 기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공현식(1989). 국내 CTS의 이용 현황과 과제.
 * 폰트 개발과 표준화 워크샵 발표논문집(한국정보과학회) : 31-33.
 김정수(1988). 정보 교환용 한글 완성형 부호 표준 안에 대해서. 한글 200:303-319.
 김창희(1989). 국어 자료 처리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의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국어생활 16.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편집부(1989). 현행 한글 코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마이크로소프트웨어 89-8 : 94-121.
 문교부(198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고교서주식회사.
 박동순 외(1987). 한글·한자 코드 표준화에 대한 연구. 한국표준연구소.
 박현철(1989a). 한글 코드 체계--그 알파와 오메가-- 마이크로소프트웨어 89-3 : 66-85.
 _____(1989b). 한글 코드는 조합형으로. 每經 PC저널 89-8 : 78-80.
 신홍철(1987). 한글 표준안 코드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웨어 87-11월호 : 65-79.
 안대혁(1989). 완성형 코드 2350자로 안 나오는 글자 많아 불편. 每經 PC저널 89-5:90-93.
 _____(1989). 왜 이제 와서 완성형인가? 每經 PC저널 89-7 : 106-107.
 유경희(1987). 컴퓨터와 국어 생활. 국어생활 11.
 _____(1989). 한글 코드에 있어서 완성형과 조합형--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연구를-- 每經 PC저널 89-9.
 이기성(1988). 한글 코드와 전자 출판. 월간사무자동화 89-11.
 이익섭(1971). 文字의 機能과 表記法의 理想. 金亨奎博士頌壽記念論叢.
 이형영(1989). 완성형 코드가 정착돼야 정보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每經 PC저널 89-6 : 90-99.
 이희승(1982). 국어 대사전. 수정증보판. 민중서림.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韓國方言資料集--忠淸北道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韓國方言資料集--全羅北道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유롭게 된 것에 기인한다. 한글의 사용을 제한된 범위의 문서 작성에서만 사용하던 것이 '한글 카드'의 개발로 한글 카드를 PC에 꽂기만 하면 데이터 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 외국의 각종 소프트웨어에서 별 수없이 한글의 입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에 사용된 한글 카드가 소위 7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한글 카드로 1,400자 이하의 한글밖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일반 업무용에선 별 무리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고, 쓸 만한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다는 시비 한 때라, 그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글다운 한글'을 사용하게 된 것은 85년경 16 비트 PC 용의 8 비트 2 바이트 조합형 한글의 출현으로 조합 가능한 모든 한글을 워드프로세서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라고 생각한다.

조합형 한글로는 KS 규격의 KS C-5601-1982이 있었으나 금성사 등 극히 일부의 PC에서만 채택 사용되고, 삼성전자에서는 또 별도의 조합형 코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기타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한국 IBM이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해 오던 한글 코드를 채택하는 등 8 비트 2 바이트 조합형 한글 코드의 3대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IBM 조합형 코드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코드는 한국 IBM이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을 전제로 한글 코드만을 제정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국어 표기에 필수적인 한자가 제외되고, 기타 특수 문자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각 PC 업체들이 자사의 PC에 맞게 별도로 한자 코드 및 특수 문자 등 그래픽 코드를 제정하여 보급했기 때문에 한글 부분은 서로 호환이 되더라도 한자 부분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동안 삼보, 큐닉스, 대우통신, 쌍풍, 현대 등에서 채택되어 8비트 2 바이트 완성형 KS 한글/한자 코드가 제정되기 전까지 가장 많은 PC 사용자들이 사용해 온 한글 코드로서, 일명 '상용 조합형 한글 코드'라고 일컬어 왔다.

이와 같은 한글 코드의 난립은 새로 불붙기 시작한 16 비트 PC 시장에서 하드웨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사 컴퓨터의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제 각기 서로 다른 한글 코드를 채택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PC에서 사용되는 한글 코드는 사용자의 PC 기종에 따라 10인 10색으로 서로 달라 소프트웨어의 호환뿐 아니라 한글 문서의 호환마저 불가능하여 사용자가 겪는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글 코드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종전의 KS C-5601-1982에 의한 2 바이트 조합형 코드가 정부 규격으로 있었으나, 한글 코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표준연구소의 주관으로 표준화의 연구가 1년여 넘게 진행되어 새로운 KS 표준 코드로 8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한글/한자 코드를 채택, 정부에서는 1987년 3월 '정보 교환용 부호에 관한 한글 공업 규격'(KS C-5601-1987)을 새로 정하게 된 것이다(박동순외 1987).

이 규격에 따르면, 완성형 한글 2,350자, 한자 4,888자, 기술·학술 기호 등 특수 문자 432자, 숫자 30자, 한글 낱자 94자, 로마 문자 52자, 그리스 문자 48자, 과선 조각 68자, 라틴 문자 27자, 일본 문자 169자, 러시아 문자 66자 등 총 8,224자와 기타 사용자 정의 영역으로 한글 95자, 한자 95자 정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은 바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 전산망용 표준 코드로 채택되어 한글 코드의 표준화로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점차 정부 차원의 컴퓨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컴퓨터 업계에서도 KS 완성형 한글 코드를 표준 규격으로 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종전에 채택했던 조합형 코드를 동시에 지원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차 KS 완성형 규격만을 지원하는 방향의 영업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성형의 채택은 근자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저렴한 워드프로세서 전용기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자 공중 정보 통신망으로 한국데이터통신의 새 천리안 서비스 및 전자 사서함 PC-VAN에서, 한국경제신문의 KETEL 등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완성형 한글을 채택,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확정된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화 방안을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한글 카드가 KS C-5601의 완성형 코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KS 한글 코드의 정착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한글 방식이 각각각색으로 N 바이트니, 3 바이트, 7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8 비트 2 바이트 완성형, 8 비트 2 바이트 조합형이니 해서 난립하던 한글 코드가 한가지로 통일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KS C-5601 완성형 한글 코드는 다음 3장에서 지적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의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KS 규격을 조합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데서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이 예상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다음 장을 달리하여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I. 완성형 한글의 문제점

그동안 KS 완성형 한글에 대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완성형 한글은 한글 조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들에게 한글이 세계 文字史上 일반 다른 문자와 비교할 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가르쳐 왔다.

조직적이란 우선 翻字의 방법이, 基本字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 글자는 거기에서 파생시켜 나가는 二元的인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 (36) 권 : 권 ← 권는, 권인 (줄)
- (36) 권 : 권 ← 권는, 권인 (줄)
- (38) 권 : 권 ← 권는/누에는, 권인/누에인 (줄)
- (39) 는 : 메는 ← 메누는/메누인 (줄)
- (40) 면 : 연면 ← 연페는, 연페인 (줄)
- (41) 편 : 갈비편 ← 갈비뼈는/갈비뼈인
- (42) 관 : 강관 ← 강좌는/강좌인
- (43) 편 : 편 ← 부어 한 편는/편인
불편 ← 불쾌는
- (44) 편 : 민편 ← 민페는/민페인

(라) 용언과 보조사 '-는'

- (45) 관 : 관 ← 꼬아는
- (46)-(73) 관,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관

(마) 체언과 조사 '-르' '-일'

- (74) 권 : 권 ← 권를, 권일 (줄)
- (75) 권 : 권 ← 권를/그이를/그일/그이일 (줄)
- (76)-(85) 권,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권, 널, 권, 권, 권, 권, 권, 권, 권, 권

(바) 용언과 조사 '-를'

- (86) 권 : 권 ← 꼬아를 (보다)
- (87)-(118)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널

(사) 어간과 명사형어미 '-ㅁ'

- (119) 권 : 권 ('권다'의 명사형)
- (120) 권 : 권, 권 (권다, 권다)
- (121) 널 : 노닐 (노니다 ← 노느이다)
- (122)-(137) 돌,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술, 술, 칩, 칩, 칩, 칩, 칩, 칩

(아)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ㅁ'의 결합

- (138) 겹 : 겹니다 (게입니다 ← 그 아이입니다)
- (139)-(164) 겹, 굵, 굵, 겹, 낱, 낱, 겹, 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뚱

(자) 사이시옷이 들어간 말

- (165) 췌 : 췌든
- (166)-(192) 췌, 굵, 굵, 췌, 췌, 췌,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낱

(차) 강세의 '시옷'이 들어간 말

- (193) 췌 : 달췌! 일췌!
- (194) - (220) 췌, 췌, 췌, 낱, 낱,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췌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현재의 2,350자로서는 현대 표준 국어의 표현조차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장 규칙적인 각급 학교 교과서의 문장도 완전한 입력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KS 완성형 한글 코드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반문하면서, 이 완성형 한글 코드가 다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컴퓨터에 표준 규격으로 채택된다고 하니,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2) 살아 있는 文化 遺産인 方言을 표기할 글자가 없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제 나라 國語는 古語를 포함하여 모든 표기 가능한 글자는 모두 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2 바이트 조합형 한글로도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멀티 바이트 체계에 의한 새로운 한글 코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논의로 하고, 최소한 方言을 포함한 현대 국어의 모든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통어로서는 표준어를 지향하고 있지만, 方言은 또한 방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방언이란 살아 숨쉬는 자연 언어의 실체로서 언어 자료의 보고라고 할 만하다. 표준어도 한 나라의 정치, 문화, 행정의 중심지인 서울 방언이 표준어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서울 방언에 없는 사물이나 어떤 개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 지역 방언 외의 지역 방언을 표준어로 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국민 생활에서는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겠지만은 사생활에서는 보다 친숙한 方言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 표현이 가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가들의 創作에서는 方言의 구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잠정적으로 '완성형 한글'과 함께 '조합형 한글'을 동시에 지원해 주고 있어 컴퓨터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요즘 보급되는 워드프로세서 전용기의 경우 '완성형 한글'만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方言까지 구사하는 자유로운 創作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대수 2,350자에 누락된 방언에 나타나는 글자 목록을 예시하여 본다. - 이 곳에 예시된 목록이 방언에 나타나는 모든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희승(1982)의 「국어 대사전」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간행의 「韓國方言資料集--忠淸北道篇--」과 「韓國方言資料集 --全羅北道篇--」에서 적의 예시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목록 제시가 가능하다(가나다 순 배열).

- (221) 감 : 감을(가부들)
- (222) 갓 : 율갓다(율갓다)
- (223) 겹 : 겹에(겨울에)
- (224) 굵 : 굵기다(굵기다)
- (225) 굵 : 굵기다(굵기다)

- (226) 경 : 경기다(굳기다)
- (227) 갓 : 갓기다(갓기다)
- (228) 꺾 : 꺾이다(꺾이다)
- (229) 꺾 : 꺾이다(꺾이다)
- (230) 꺾 : 꺾이다(꺾이다)
- (231) 꺾 : 꺾이다(꺾이다)
- (232) 낚 : 낚이다(낚이다)
- (233) 늑 : 늑다(늑다-전북)
- (234) 늑 : 늑다(늑다)
- (235) 닻 : 닻(닻)
- (236) 독 : 독(독)
- (237) 뵈 : 어뵈다(어뵈다)
- (238) 췌 : 췌다(도리어, 오히려-충북)
- (239) 췌 : 췌다(두었다)
- (240) 푼 : 푼다(푼다)
- (241) 푼 : 푼다(푼다)
- (242) 푼 : 푼다(푼다)
- (243) 꿩 : 꿩(꿩어)
- (244) 꿩 : 꿩다(꿩다/꿩다)
- (245) 꿩 : 꿩다(꿩다)
- (246) 꿩 : 꿩다(꿩다)
- (247) 맏 : 맏기다(맏기다)
- (248) 뽕 : 뽕이(뽕[體]이)
- (249) 척 : 척히다(척히다)
- (250) 뵈 : 뵈이다(뵈이다)
- (251) 뵈 : 뵈이다(뵈이다)
- (252) 뽕 : 뽕다(뽕다-전북)
- (253) 뵈 : 뵈이다(뵈이다)
- (254) 뵈 : 뵈이다(뵈이다)
- (255) 뵈 : 뵈이다(뵈이다)
- (256) 뵈 : 뵈히다(뵈히다)
- (257) 뵈 : 뵈다(뵈다)
- (258) 뵈 : 뵈다(뵈다)
- (259) 뵈 : 뵈다(뵈다)
- (260) 뵈 : 뵈다(뵈다)
- (261) 뵈 : 뵈다(뵈다)
- (262) 솟 : 솟이(솟이)
- (263) 솟 : 솟을(솟을)
- (264) 솟 : 솟다(솟다)
- (265) 솟 : 솟어라(솟어라)
- (266) 솟 : 솟이다(솟이다)
- (267) 솟 : 솟히다(솟히다)
- (268) 솟 : 솟어라(솟어라)
- (269) 뵈 : 뵈이(뵈이)
- (270) 뵈 : 뵈다(뵈다)
- (271) 뵈 : 뵈히다(뵈히다)
- (272) 뵈 : 뵈기다(뵈기다)
- (273) 뵈 : 뵈히다(뵈히다)
- (274) 뵈 : 뵈어(뵈어)
- (275) 뵈 : 뵈다(뵈다)
- (276) 뵈 : 뵈다(뵈다)
- (277) 꺾 : 꺾을(자부름)
- (278) 꺾 : 꺾(꺾)
- (279) 꺾 : 꺾다(꺾다)
- (280) 꺾 : 꺾어(꺾어)
- (281) 꺾 : 꺾이(꺾[體]이)
- (282) 꺾 : 꺾어(꺾어)

- (283) 꺾 : 꺾다(꺾다)
- (284) 꺾 : 꺾다(꺾다)
- (285) 꺾 : 꺾다(꺾다)
- (286) 꺾 : 꺾기다(꺾기다)
- (287) 꺾 : 꺾게(꺾기-꺾주)
- (288) 꺾 : 꺾다(꺾다)
- (289) 꺾 : 꺾다(꺾다)
- (290) 꺾 : 꺾다(꺾다)
- (291) 꺾 : 꺾이(꺾이)
- (292) 꺾 : 꺾이(꺾이)
- (293) 꺾 : 꺾이(꺾이)
- (294) 꺾 : 꺾다(꺾다)
- (295) 꺾 : 꺾(꺾-꺾상)
- (296) 꺾 : 꺾이(꺾[豆]이)
- (297) 꺾 : 꺾다(꺾다-꺾북)
- (298) 꺾 : 꺾다(꺾다)
- (299) 꺾 : 꺾다(꺾다)
- (300) 꺾 : 꺾다(꺾다)
- (301) 꺾 : 꺾다(꺾다-꺾상)
- (302) 꺾 : 꺾다(꺾다)
- (303) 꺾 : 꺾다(꺾다)

(3) 올바른 국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글자가 없다

또한 우리가 규범적인 국어 생활을 위하여 올바른 맞춤법, 바른 표준어의 사용, 표준 발음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에서 볼 때에도 2,350자의 완성형 한글로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나뭇가지를 꺾다"고 썼을 때, 「꺾」은 맞춤법에 불리니, 「꺾」이라고 써야 한다고 할 때 「꺾」을 적을 수가 없으며, "뽕이 솟을/솟어"라고 말하는 방언 화자의 "솟어", 또는 "솟어"는 방언이니 "없어"라고 해야 한다고 할 때, 「솟, 솟」을 적을 수가 없다. 국어 교육에서 "솟"의 발음이 국어의 중화 규칙에 따라 「은」이라고 발음된다고 가르치면서 「은」을 적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문교부 고시 「국어 어문 규정집」의 <표준어규정> 중 '표준 발음법'에서 국어의 올바른 발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된 글자 중 파진 글자를 추려 본다. (문교부 1988). 초·중·고의 국어 교육에서 바른 발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예시된 글자 외에도 발음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글자는 훨씬 더 많은 글자를 추가할 수 있다.

- (304) 꺾 : 고꺾꺾[고꺾꺾/고꺾꺾]
- (305) 꺾 : 식꺾꺾[식꺾꺾]
- (306) 꺾 : 꺾꺾[꺾꺾/꺾꺾]
- (307) 꺾 : 꺾꺾[꺾꺾→꺾꺾]
- (308) 꺾 : 꺾꺾[꺾꺾]
- (309) 꺾 : 꺾꺾[꺾꺾→꺾꺾]
- (310) 꺾 : 꺾꺾[꺾꺾]
- (311) 꺾 : 꺾꺾[꺾:꺾/꺾:꺾]
- (312) 꺾 : 꺾꺾[꺾꺾]
- (313) 꺾 : 꺾꺾[꺾꺾]
- (314) 꺾 : 꺾꺾[꺾꺾→꺾꺾]
- (315) 꺾 : 꺾꺾[꺾꺾/꺾꺾]

- (316) 린 : 물엿[물린]
- (317) 물 : 나뭇잎[나물닙→나분닙]
- (318) 뭉 : 금용[금농/그몽]
- (319) 밭 : 꽃밭[꽃밭→꼬밭]
- (320) 벨 : 벨다[벨따]
- (321) 췌 : 입원료[이췌뇨]
- (322) 비 : 협의[허비]
- (323) 빌 : 빛다[빌따]
- (324) 밭 : 꽃밭[꽃밭→꼬밭]
- (325) 샅 : 샅길[새:킬/샅:킬]
- (326) 숲 : 숲[숲]
- (327) 울 : 옷[울]
- (328) 울 : 옷다[울:따]
- (329) 일 : 있다[일따]
- (330) 절 : 젓[절]
- (331) 쫄 : 쫄다[쫄따]
- (332) 췌 : 고개췌[고개췌/고개췌]
- (333) 쿵 ; 쿵등[코똥/쿵똥]
- (334) 췌 : 췌따[췌:따루→핀따루]
- (335) 뽕 : 대뽕밥[대:뽕밥/대:뽕밥]
- (336) 햅 : 햅쌀[햅쌀/햅쌀]

3. 音素 分析이 불가능하므로 한글의 人工知能 분야에서의 활용이 어렵게 된다.

완성형 한글에서는 각 음절을 음소 단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음소 분석, 형태소 분석 등의 국어 자료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필자가 충북대학의 이상호, 정인상 교수와 공동 개발한 국어의 음소 빈도 조사 프로그램이나, 형태소 검색 프로그램도 조합형 한글을 사용했기 때문에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만약 완성형 한글밖에 컴퓨터가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했을 것이며,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앞으로 한글 문장의 인식, 자동 번역 시스템, 한글 패턴 인식 등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글을 사용할 때에도 한 음절을 음소로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홍철 1987, 안대혁 1989, 박헌철 1989ab).

이번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의 주제가 「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거나, 전문가 여러분께 현재의 KS 완성형 한글 코드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해 내야 할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가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다.

4. 정보 교환용이라는 완성형 한글이 오히려 정보 교환에 장애가 된다.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완성형 한글의 단점으로 2,350자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94자의 '사용자 정의 영역'에 추가할 글자를 집어 넣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 사용자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자 정의 영역에 추가 글자를 정의하게 되므로 상호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사용자 정의 영역 1번 코드에 A 사용자가

'닝'을 넣어 사용하고, B 사용자는 '윳'을 넣어 사용한다면 상호 정보 교환은 불가능한 것이다.

사용자 정의 영역을 이용했을 때의 문제로, 컴퓨터의 생명인 순차 배열(sort)에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같은 사용자가 정의한 문자라도 사용자 정의 문자로 정의된 한글은 '가나다' 순의 배열이 불가능함은 물론이다.

한 가지 예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 사서함 가운데 DACOM의 PC-VAN과, 세 천리안 서비스, 한국경제신문의 KETEL 의 경우 완성형 한글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규정」이 시행되고 있거나, 이들 전자 사서함 서비스에서 가입자들을 위한 '새 한글 맞춤법 강좌'를 개설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본인이 사용자 정의 영역을 이용하여 2,350자 이외의 글자를 만들어 넣어도 우선 호스트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나 문제도 부딪히게 된다.

앞으로 국어 사전의 편찬도 컴퓨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형 한글의 경우에도 고어 처리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어 처리 문제는 적혀 두더라도 현대국어 사전도 현재의 완성형 한글로는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백과사전이, 국어사전이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단말기를 통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검색하여 읽을 수 있고, 인쇄를 해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한다(유경희 1987). 우리도 미구에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듣고 있거나와 아마도 이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해서는 고어 처리도 가능한 새로운 한글 코드의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사전 편찬을 위해서 따로 한글 코드를 개발하여 사전 편찬 작업을 마무리했을 때, 사전 자료의 축적 결과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거나, 이때 이미 각계 각층에 보급되어 있는 현재의 완성형 컴퓨터로서는 그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어차피 미구에 KS 규격이 다시 조합형으로 개정되리라 보고거나와, 이미 보급되어 있는 완성형 한글을 조합형으로 개조해야 될 때의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 것인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5. 현재의 완성형 한글에는 등록된 글자를 화면에 나타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2,360 자의 완성형 글자 중 '뵐, 쌍, 췌, 췌, 췌, 췌'의 5 글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신홍철 1987).

조합형이나 완성형이나 글자의 입력은 글자판에서 '초성+중성+종성'을 차례로 눌러 글자를 만들어 내는데, 이 5 글자는 그 앞 단계의 '초성+중성' 글자 '뵐, 쌍, 췌, 췌, 췌'가 없기 때문에 글자판에서의 입력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들 글자에 배당된 코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 제정의 KS 규격에서 이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